

목 차

- 편집인 인사말
- 진주시장 축사
- 유네스코 본부 축사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축사

논문

- 21세기의 창의도시: 일본의 사례
- 치앙마이의 창의 도시화를 위한 지역 전통 지식의 보존과 전파
- 창조도시론의 전개와 한국의 상황
- 농촌차원의 문화공간
- 민속예술의 재생을 통한 문화 창의 산업의 진흥: 신명과 흥이 있는 사람들의 도시, 진주를 기대하며

대담

- 팬데믹 시대의 문화예술 활동 : 과제와 극복방안

창의관광 트렌드

- 목적지 생태계의 지렛대인 창의관광

창의도시 소식 및 활동

- 바르셀루스(포르투갈)
- 수코타이(태국)
- 치앙마이(태국)
- 파두카(미국)
- 샤흐자(아랍에미리트)
- 비엘라(이탈리아)

문화유산

- 진주검무

문화유산

[진주검무]

임수정  
(경상국립대학교 민속무용학과 교수)

1. 지역인의 사랑을 받는 진주춤

진주검무는 조선시대에 기생(전문 여성 예능인)에게 노래와 춤을 가르치던 정부 기관인 교방에서 공연된 검무들 중 가장 대표적인 춤이다. 진주는 춤의 고장으로 여러 가지 전통춤이 전승되고 있지만, 진주 사람들은 그 중에서 진주검무를 가장 귀중하게 여긴다. 진주 사람들은 춤을 배우면 대개 검무를 먼저 배운다. 또한 진주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등 많은 행사에서 진주검무가 가장 많이 공연된다.

진주시가 2017년부터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풀뿌리 문화프로젝트로서 ‘진주 전통춤 보급’ 활동을 시작했을 때도, 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강습한 춤이 진주검무였다. 올해는 코로나 19 때문에 진주검무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 가을부터는 보급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까지 약 2,000여명의 시민들이 진주검무를 출 수 있게 되었다.



진주검무(진주검무보존회 제공)



## 2. 문화사적 배경

역사적으로 보면, 검무는 우리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는 춤이다. 이 춤은 상고시대의 수렵무용이나 의례무용 또는 전투무용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 춤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맥(脈)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 전통춤이다.

교방검무는 조선 후기에 궁중정재의 하나로 정착되어, 예술적으로 다듬어지고 세련되어지면서 궁중연향의 필수적인 공연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궁중에서 큰 연향이 열릴 때면, 각 지방 교방청에서 파견된 관기들이 모여서 함께 연습하고 공연에 참가하였으며, 연향이 끝나면 그들이 각 지방으로 돌아와서 궁중의 검무를 보급하였다. 지방 관아나 민간의 행사 때에도 검무가 공연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독특한 특색을 담은 각 지역 특유의 검무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진주의 여기들은 검무에 뛰어났다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진주에서는 검무가 활발히 추어졌고 타 지역 검무에 비해서 예술성이 뛰어났다.

진주검무를 정확히 기록한 『교방가요』에는 검무를 추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네 명의 기녀가 칼을 들고 추는데, 절하는 동작, 손을 들고 내리는 동작, 쌍쌍이 마주보고 추는 동작, 칼을 휘두르며 추는 동작, 칼을 겨드랑이에 끼고 도는 동작, 칼을 휘두르면서 원을 그리며 도는 동작 등 여러 춤사위들이 묘사되어 있다. 칼은 목이 구부러지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이런 동작들이 전승되고 있으며, 주로 8명이 등장하는 팔검무를 춘다.

## 3. 의암별제와의 연관성

진주성은 1592년부터 1597년까지 7년에 걸쳐 벌어진 임진왜란에서 격전지였다. 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진주성을 함락시킨 왜군이 축석루에서 자축연을 베풀었는데, 이 때 진주관기 논개가 왜장을 유인하여 함께 남강물에 투신하여 순국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후 논개는 진주 지역의 기녀들에 의해서 추모되었고, 오늘날까지 진주의 상징적인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매년 봄에 행해지는 전통예술축제가 '진주논개제'로 불려지고 있다. 19세기 말엽 진주목사로 부임한 정현석은 임진왜란 중 순국한 논개를 추모하기 위해 의기사(義妓祠)를 고쳐 짓고, 논개를 추모하는 제사인 의암별제(義菴別祭)를 거행하였다. 이 「의암별제」에서 진주검무가 헌무로 추어졌다. 이후 매년 「의암별제」가 거행되었는데, 일제시대에 그 전승이 중단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진주지역 교방(敎坊)의 기녀들이 연행했던 공연물들을 비롯하여, 의암별제 가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정현석의 『교방가요(敎坊歌謠)』가 발견되었다. 이것들을 토대로, 1992년에 진주민속예술보존회가 임진왜란 400주년을 기념하여 의암별제를 복원하였다. 의암별제는 여성이 제관이 되고, 모든 순서가 여성들에 의해서 거행된다. 매년 거행되는 의암별제에서 여성들이 진주검무를 헌무로서 공연한다. 이렇듯 진주검무는 논개의 충혼을 기리는 헌무로서 제의성을 갖고 있다.



### 4. 전승과 창의산업화

검무를 진주에서 전승하고 보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한 사람은 진주감영 소속 교방청의 여기였던 최순이(완자, 1884-1969)이다. 그녀는 8세 때부터 가무를 배우고, 13세 때 진연도감청에 뽑혀 올라가 장악원에서 정재를 훈련 받았으며, 1906년경 고종황제 앞에 나아가 춤을 추었다. 그녀는 1910년 한일합방과 더불어 낙향하여, 기생과 그밖의 예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진주권변에서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오늘날의 진주전통예술의 기초를 놓았다. 의암별제의 복원도 그녀의 구술에 크게 의존하였다.

진주검무는 1967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로 지정받게 되었다. 당시의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진주검무는 무용사적으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예술적인 면에서도 높이 평가된다.” 궁중에서 전래한 검무의 원형을 최순이가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었고, 제자인 이운례, 김자진, 김수악 등이 최순이에게 검무를 이수한 후 50여년간을 계속 검무를 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성계옥, 김태연, 유명희가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진주검무의 전승단체인 진주검무보존회(회장 유명희)는 매년 정기발표회를 갖는 등 이수자들을 위한 전수 활동과 현대적 재창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주 토요일에는 진주성 축석루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토요일 상설 공연을 열고 있으며, 진주의 봄축제인 「진주논개제」에서 200여명이 동시에 검무를 추는 실험적인 공연을 하여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매년 가을에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보급 활동을 벌이고, 진주검무 동아리 발표회를 갖는다. 2019년에는 공연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진주검무와 미디어 아트를 결합하여 새로운 융합예술작품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